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5 Issue | Vol. 6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대부분의 CEO들, 산업 전망에 낙관적
— page 1-2
- DTI, 수출업체들을 비(非)미국
시장으로 유도 — page 2-3
-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위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제안
— page 3-4
- “토지 임대 연장,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 page 4
- 미국 관세 압박 속 중국, 아세안에
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체결 압박
— page 5
- 3개 사업 제외로 PPP 파이프라인 2
조 7,700억 페소로 축소 — page 5-6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7

대부분의 CEO들, 산업 전망에 낙관적

September 09,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하지만 인프라 및 부패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에 기반을 둔 CEO의 80% 이상이 산업 및 수익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지만, 부패 문제 해결과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필리핀경영자협회(MAP)와 PwC 필리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5 필리핀 CEO 설문조사 결과, CEO의 83%가 향후 12개월간 자국 산업의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86%)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필리핀 CEO의 84%가 향후 수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필리핀에 기반을 둔 약 200명의 CEO가 참여했다.

CEO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건전한 통화 정책, 강력한 금융 시스템, 정부 목표 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물가 상승률 등 국가의 견고한 거시경제 기초 여건에 기반하고 있다.

필리핀에 기반을 둔 CEO들은 향후 12개월간 경제 성장이 인프라 개발(65%), 국내 소비(62%), 정부 지출(41%)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owering buildings of the Ortigas business district are photographed on February 26, 2025.

STAR / File

PwC 필리핀의 기업 인수·합병 및 기업 재무 파트너인 트리시 로가시온(Trissy Rogacion)은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필리핀 CEO들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인프라를 추진하는 방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83%에서 올해 69%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74%에서 올해 65%로 떨어졌다.

로가시온은 “부패 척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만이 높으며, 정부가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단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실패한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 우리 CEO들은 정부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성공하기를 예의주시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마르코스 대통령은 예비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홍수 방지 사업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000억 페소 규모의 사업을 15개 업체가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PwC 필리핀 회장이자 시니어 파트너인 로데릭 다나오(Roderick Danao)는 홍수 방지 사업의 불규칙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숨봉 사 팡울로(Sumbong sa Pangulo)’ 웹사이트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는 민원이 증가하고 관련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2]

대부분의 CEO들, 산업 전망에 낙관적

[Cont. from page 1]

“이제 다음 단계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집행과 법적 조치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CEO들이 정부가 취할 다음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나오는 특별한 개입이 없더라도 경제가 5~6%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가속화한다면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지, 홍수 방지 사업만 많은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의 효과를 체감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그는 필리핀 경제가 서비스 중심 모델에서 산업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그 신뢰는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고 그는 말했다.

CEO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우려 사항과 관련해, 설문조사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47%), 불확실한 경제 성장(47%), 인력 문제(42%)가 상위권에 꼽혔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 20%만이 이러한 조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CEO의 절반 이상인 52%는 현 상태대로라면 자사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이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는 인플레이션 위험(94%), 거시경제 변동성(93%), 사이버 리스크(84%)가 지목됐다.

향후 12개월 동안 필리핀에 기반을 둔 CEO들은 인력 역량 강화(82%), 자동화 이니셔티브(78%), 첨단 기술(63%)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9/09/2471404/most-ceos-upbeat-industry-outlook>

DTI, 수출업체들을 비(非)미국 시장으로 유도

September 05,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Shipping containers sit at the Manila North Harbor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전면적인 효과가 8월 수출 통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을 유럽, 아세안, 중동 등 다른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목요일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대미 수출 급증은 주로 미국의 19% 상호 관세가 8월부터 시행되기 전에 선적을 앞당기거나 가속화한 데 기인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통상 수장은 이러한 수출업체들의 ‘전략적’ 대응이 관세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로케 장관은 “따라서 관세의 전면적인 효과가 8월 수출 통계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그는 향후 무역 통계와 수출 실적이 이러한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면,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DTI는 수출업체들이 EU, 영국,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로케 장관은 “READY4EU와 같은 프로젝트는 유럽에 진출하는 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FTA 정보 포털과 같은 디지털 도구는 기업들이 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 설명했다.

[Cont. page 3]

DTI, 수출업체들을 비(非)미국 시장으로 유도

[Cont. from page 2]

이와 함께, DTI는 수출업체들이 바이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지원하고, 수출 서류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상산업부는 전국적으로 학습 세션을 개최하고, 포장·마케팅·국제 표준에 대한 코칭을 제공해 왔다.

지난주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의 수출액이 48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2024년 같은 기간의 426억 9천만 달러보다 13.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증가에 대해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무역업자들이 선적을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76억 6천만 달러(점유율 16%)를 기록했다. 그 뒤를 홍콩(68억 3천만 달러, 14.1%), 일본(68억 달러, 14%)이 이었다.

워싱턴이 필리핀 수출품에 19%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한 달 전, 일본으로의 수출은 14.9%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어 홍콩(14.1%), 미국(12.7%) 순이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조지 N. 만사노 전 관세위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선적 앞당기기(frontloading)가 타당한 설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적 앞당기기는 미국 수출 증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사노 전 위원은 “그렇다고 본다. 4월부터 8월까지 상호 관세율은 10% 수준이었는데, 관세가 올랐음에도 수출도 함께 증가했다”며 지난 금요일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다른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지만, 필리핀이 일본과 홍콩 시장 다변화에서 성과를 내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이 홍콩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은 전자제품으로, 이는 필리핀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BusinessMirror)

Image credits: AP/AARON FAVIL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5/dti-steers-exporters-to-non-us-markets/>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위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제안

September 08, 2025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에 가상 전력구매계약(VPPA)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DoE가 제시한 초안 지침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개발업자가 전력에 대한 보장된 대가를 조건으로 REC를 기업 및 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금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초안 지침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실제로 전기를 송출하지 않고도 자발적 REC 매매를 포함하는 VPPA를 체결할 수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참여자에게 발급되며, 해당 에너지가 적격 재생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산·판매·사용된 것임을 나타낸다.

RPS 준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급된 REC를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부(DoE)는 “자금 조달 또는 금융 목적을 위해, VPPA는 VPPA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의 보장된 구매를 위한 유효한 전력구매계약(PPA) 유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Cont. page 4]



Solar panels are being installed on the roof of a mall. — GREEN HEAT HANDOUT PHOTO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위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제안

[Cont. from page 3]

DoE는 자발적 REC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이 VPPA 프로젝트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가 생산한 전력과 연계된 자발적 REC의 가치는 국내외에서 확립된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VPPA에 따른 자발적 REC는 상업 운전일로부터 최소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REC 거래를 위한 장(場)인 재생에너지 시장(RE Market)은 2024년부터 전면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2008년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정부가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35%, 2040년까지 50%로 높여려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9/08/697107/virtual-ppas-proposed-for-trading-in-re-certificate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9/08/697107/virtual-ppas-proposed-for-trading-in-re-certificates/)

‘토지 임대 연장,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September 08, 2025 | Butch Fernandez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상원의장 프란시스 G. 에스쿠데로는 일요일, 토지 임대 계약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을 이상적인 투자지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쿠데로가 제19대 의회에서 주요 발의한 이번 법은 9월 3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대 계약을 기존 최대 75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1993년에 제정된 공화국법 7652호(외국인투자자 토지임대법, Investors' Lease Act)를 개정했다.

에스쿠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우리 법률의 과도한 규정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업들은 법과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번 법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소유권이 투자자들이 사업지를 선택할 때 항상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아무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쿠데로는 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고,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국민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장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에 따라 임대된 토지는 승인되고 등록된 투자 목적에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 계약은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등록된 임대 계약은 부수적인 공격(collateral attack)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직접적인 절차가 아닌 한 변경·수정·취소될 수 없다.

임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해당 부동산을 제임대할 수 있다.

법은 99년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 기존 법률·공공질서·공공정책·도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무효로 이어지며, 양 당사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100만~1천만 페소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은 법안을 지지해 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8/land-lease-extension-to-make-phl-more-appealing-to-foreign-investors/](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8/land-lease-extension-to-make-phl-more-appealing-to-foreign-investors/)

미국 관세 압박 속 중국, 아세안에 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체결 압박

September 09, 2025 | By Reuters | The Manila Times

베이징 —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연내에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양둥(嚴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월요일 밝혔다.

The Manila Times®

FTA 개정 협상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으며, 농업·디지털 경제·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길을 열었다.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자신들을 “보다 개방적인” 주요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지역을 겨냥해 무역 체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별화를 피하고 있다.

양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연말까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 업그레이드 의정서의 공식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 협력을 고수해 왔다”고 덧붙이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중국의 아세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5% 급증해 57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33.1% 급감해 316억 달러로 떨어진 상황을 상쇄하는 효과를 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나 검역 기준 등에서 RCEP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항을 담고 있어 덜 야심찬 협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은 호주, 브루나이, 영국,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신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CPTPP가 ‘무역 정책의 금과옥조’로 불린다고 분석한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CPTPP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회원국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정에 베이징을 참여시키지 여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난처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9/09/business/top-business/china-pushing-asean-to-seal-trade-pact-upgrade-as-us-tariffs-bite/2180892>

3개 사업 제외로 PPP 파이프라인 2조7,700억 페소로 축소

September 04, 2025 | By Manila Bulletin Newsroom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의 공공-민간 협력(PPP) 사업 파이프라인에서 3개의 주요 국가 프로젝트가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대기업 자본으로 조달될 인프라 총액은 2조7,700억 페소로 줄었다.

PPP센터가 9월 3일(수) 기자들에게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전체 229개 프로젝트의 최신 총사업비는 7월의 2조8,600억 페소 규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PP센터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변화가 민간 제안(unsolicited proposals)과 집행기관(IA)으로부터의 신규 제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PPP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은 세 가지다.

3억2천만 페소 규모의 필리핀 은퇴청(PRA)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제외되었으며,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MMDA) 산하의 하루 3,000톤(TPD) 처리 규모 293억9천만 페소 규모의 폐기물-에너지(WtE) 시설도 삭제됐다.

또한,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추진하는 뉴클라크시티의 위생매립지(SLF)-폐기물 에너지화(WtE) 프로젝트 역시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되었다.

[Cont. page 6]

3개 사업 제외로 PPP 파이프라인 2조7,700억 페소로 축소

[Cont. from page 5]

PPP센터는 이번 제외 조치가 민간 제안(unsolicited proposals) 협상 결렬과 집행 방식(mode of implementation)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PPP 파이프라인에는 폐기물 에너지화(WtE)와 학교 인프라 관련 국가 프로젝트 두 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메트로 마닐라 WtE 프로젝트는 약 296억2천만 페소 규모로, MMDA가 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DepEd)가 제안한 학교 인프라 PPP 4단계(PSIP IV)는 아직 개념 단계에 있으며, 사업 비용은 미정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은 전국적인 교실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SB)에 대해 PPP 프로젝트에 더 엄격한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8월 18일 상원 법안 121호, 즉 파울로 베니그노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교실 건설 가속화 프로그램(CAP)법안’에 대한 논평에서, PIDS의 수석연구위원 마이클 랄프 M. 아브리고는 과거 교육 인프라 프로그램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DepEd), 중앙정부(NG) 예산 및 PPP를 통한 재원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LGU)와 민간 부문 파트너를 활용해 16만5천 개 이상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브리고는 PPP가 공급 역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행정부 시절 시행된 PSIP 초기 단계는 계약상의 취약성과 지연 및 높은 위험으로 인해 광범위한 민간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브리고는 CAP 법안에 교실 PPP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평가 의무화, 분할 납부, 타당성 격차 보전(viability gap funding), 또는 목표 세제 혜택과 같은 유연한 비용 회수 모델 도입, 비용 분담 규칙·벌칙·성능 보증을 규정하는 명확한 수익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아브리고는 부지 사전 평가, 계약 설계, 프로젝트 준비 등을 담당할 전담 PPP 감독 기구의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교실 건설의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PP 안전장치 외에도 아브리고는 소외 지역 우선 배분을 위한 형평성 중심의 배분 체계, 재난 대응형 교실 설계, 생애주기 유지보수 재원 마련, 단순히 프로젝트 완료 여부뿐 아니라 학급 규모와 학습 환경의 실제 개선까지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09/04/ppp-pipeline-down-to-277-trillion-as-3-projects-delisted>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OFFICE OF THE PRESIDENT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RICKY CARANDANG
GUARIN**
HEAD OF EXTERNAL
AFFAIRS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ANDREW JEFFRIES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ATTY.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USEC. ASIS PEREZ
DEPARTMENT OF
AGRICULTURE



**USEC. CARLOS
PRIMO DAVID**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SATYA RAMAMURTHY
CHAIR PUBLIC SECTOR
STRUCTURED FINANCE
DEPARTMENT ASIA PACIFIC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PAO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IM WEI SIONG
VIC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 POLICY
ASIA PACIFIC
MASTERCARD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ROBERT EWING
DEPUTY CHIEF OF MISSION
U.S. EMBASSY MANILA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RONALD ACIO
SENIOR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GHD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STRUCTURE
ECONOMIC ESTATES



FRANCISCO MORENO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SOUTHEAST
ASIA
ACCIONA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CO-PRESENT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